

스토리의 시발점 :

인하대학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모든 학생들이 해당 살인사건을 기사로 접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죽은지 알 수 없음->그에 맞게 추리)

[장소->조사 , 도구->미니게임 , 용의자->미연시]

피해자: 김인하군

용의자 : 학생회장, 졸업생, 동아리 선배, 생물학 교수, 전애인(과CC)

실제 범인 : 학생회장

살인도구: 독약

*장소 설정(각 용의자들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서 단서 획득)

- 학생회장 : 화장실
- 졸업생 : 재학시절 사용하던 사물함이 있는 복도
- 동아리 선배 : 동아리실
- 남춘성 교수 : 주차장
- 전 애인 : 자취방

제목: "인하대 살인사건"

-> 증거(단서로 노출)

-> 추리 설정 (게임에 노출 x)

서문:

이야기는 한 대학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둘러싼 추리와 진실의 탐구를 그려낸다. 살인사건 발생 당일, 대학의 조용한 캠퍼스는 의문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이제 용의자들과 함께 추리의 문이 열린다.

Chapter 1: 실종된 목격자

학생회장은 사건 당일 설사로 인해 화장실에 머물러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명의 증인들은 그가 한 시간 동안 강의실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알리바이를 의심하게 된다.

학생회장은 자신의 핸드폰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가 사건 당일 가족과의 문자 기록을 찾는 동안, 조용히 몰래 모니터링하던 형사는 그가 어떤 내용을 찾고 있는지 주목한다. 학생회장은 설사의 증거로 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찾고자 하며, 특히 아침에 가족과 함께 먹은 식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다. 김밥이 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설사를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사로 인한 중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형사는 주변을 빠르게 탐색하며, 학생회장의 알리바이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한다. 그는 학생회장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찾고, 다른 학생들과의 증언을 조사하며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한다. 몇몇 증인들은 학생회장이 한 시간 동안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동선에 차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형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주인공은 학생회장이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탐구한다. 가족과의 대화 내용이나 기타 핸드폰 기록을 통해 학생회장의 진실을 파악하고, 그가 사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사건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들을 발견하게 된다.

-> 학생회장이 가족과의 대화 내용에 설사를 일으키는 식사에 대한 언급이나 사건 당일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있다.

-> (나중에 밝힐 정보) 사실 학생회장이 직접 사온 김밥이었으며, 카드내역을 확인해 보니 비슷한 시간에 샌드위치를 산 것이 밝혀졌다. (일부러 오늘 살해를 계획하고 가족한테 상한김밥 먹이고 같이 배탈난척 한거임)

-> 학생회장과 관련된 학교 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사건 당일 일부

CCTV가 고장난 것으로 밝혀졌다..

Chapter 2: 숨겨진 동기

졸업생은 보조 배터리를 찾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건 당일 복학생 친구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인하군을 보게 되었으며, 갑작스럽게 자신은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인하군을 따라갔다.

주인공과 형사는 이상한 동선과 행동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주변의 증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졸업생의 방문 목적을 밝혀내려고 한다. 그리고 형사는 졸업생이 왜 그렇게 서둘러 나갔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 인하군과의 마주침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조사한다.

주인공은 졸업생과의 대화를 분석하고, 그의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추측하기 시작한다. 졸업생이 단순히 보조 배터리를 찾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파헤쳐본다.

-> 사실 따라간 이유는 단순하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롤 결승전이 생각났고, 친구랑 한 약속이 생각나 지각한 사람이 밥을 사주기로 한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Chapter 3: 음악실의 의문

동아리 선배는 사건 당일 음악실에서 비공식 술자리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혼자서 돌아왔으며, 함께 가자는 바다양의 제안을 거절했다. 동아리 선배가 나간지 30분이 지난 후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며 술자리에 있는 참석자들이 주장했지만,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인공과 형사는 동아리 선배가 술자리에서 경험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술자리 참석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들은 소리가 들렸던 시간대나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술자리 장소를 조사하고, 가능한 목격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주인공은 동아리 선배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말속에서 숨겨진 힌트를 찾기 시작한다. 그는 선배가 왜 혼자서 술자리를 열었는지, 동아리 선배와 바다양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알아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동아리 선배가 사건과 관련된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그는 같은 동아리인 선배의 미성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FM 성격의 인하군과 평

소 사이가 좋지 않다.

-> 사건 당일에도 동아리실에서 다른 동아리원들과 술파티를 연 것에 대해 인하군은 동아리부원으로서 항의를 하였고, 선배를 지적한 것에 대해 마땅치 않았는지 인하군과 말싸움이 일어났다. 다소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 되기 전에 동아리 선배는 "아 진짜 죽여 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하였고, 동아리실에는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듣게 되었다고 한다.

-> 사실 단순한 분조장 인간이다.

->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토를 하고 싶었는데, 술자리 참석자들 앞에서 토를 한 사실이 들켜질까봐 부끄러워 혼자 나간 것이다.

Chapter 4: 숨어있는 증언

남춘성 교수는 사건 현장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동안 빨간색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쓴 인물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했다. 그는 그 인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무언가가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임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주인공과 형사는 남춘성 교수의 진술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조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찾으려고 한다. 다른 목격자들은 빨간색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쓴 인물에 대해 목격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주인공은 남춘성 교수의 진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는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어떤 상황에서 목격한 것인지, 그 인물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증거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남춘성 교수의 진술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인공은 남춘성 교수의 진술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빨간색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쓴 인물의 정체성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숨어있던 증언들로부터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나갈 수 있게 된다.

-> 인하군에게 자신의 조교가 되라는 말을 항상 하였다. 하지만, 인하군은 조교로서 성장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꿈이 커 최근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 남춘성 교수는 인하군의 길을 응원하였지만, 요근래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춘성 교수가 인하군을 증오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 사건 당일 범인의 자세한 인상착의를 보았지만,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지목

이 되었다.

-> 사실 인하군에게 단단히 빠졌지만 여전히 제자를 아꼈고, 술에 잔뜩 취했기 때문에 자신이 본 상황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Chapter 5: 전여친의 행동

전애인과 인하군의 이별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어지럽게 만든다. 동아리 선배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 그들은 큰 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싸움은 강렬한 감정과 과거의 갈등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동아리 선배는 그들의 싸움을 목격하였으며, 그 이후로 전애인은 학교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전애인의 이별과 인하군의 관계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전애인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인하군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이 사진은 그녀와 인하군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증명한다. 주인공은 전애인과 인하군의 관계를 자세히 파헤쳐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한다.

전애인과 인하군에 대하여 각각 접근하여 사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들의 감정, 용의자들과의 관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흔적 등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한다. 또한, 사진을 통해 인하군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애인과 인하군의 이별과 그들의 관계는 사건의 전체적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단서들이다. 주인공은 흩어진 단서들을 조각조각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단서들을 활용하고, 전애인과 인하군의 이별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리를 진행한다.

-> 인하군과 전애인 D양은 최근 이별을 하였다.

-> 전애인 D양의 사물함 안에서 인하군이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평소 전애인 D양은 "바람 피는 사람들은 진짜 사회의 악이야"라는 소리를 자주 하였으며, 요근래 자신의 친구들에게 인하군이 소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 인하군이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은 사실, 인하군의 여동생이었고 인하군과 인하군의 동생 및 전애인이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남매의 사이가 좋아 보여 전애인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다.

->복도에서 큰 싸움이 있었지만 사실 인하군과 전애인은 성격 차이로 싸움이 잦았으며, 남들 모르게 이별을 많이 한 상태이다. 사실, 둘이 싸우고 헤어지는 것은 남들

이 모르는 평범한 일상이며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전애인에게 별 타격이 없는 것이다.

Chapter 6: 살인 동기

평소 인하군은 과탐에다가 반반하고 잘생긴 외모에 매너가 좋은 성격까지 겸비하고 있어, 동기들과 후배 및 선배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다.

차기 학생회장은 다들 인하군이 출마할 것을 응원하였다. 그로 인하여,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은 학생회장은 이를 질투로 느끼기 시작하였고, 질투가 곧 증오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사건 당일 학생 회장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였다. 일부러 가족에게 상한 김밥을 사 먹인 뒤, 추후 범행이 들킬 것을 고려하고 알리바이를 설정한 것이었다.

학생회장은 주전공이 생명공학과학이며, 직접 피를 보는 살인은 두려워 WPEOR라는 피부에 닿기만 해도 전체에 몸이 퍼지는 독약을 개발하였다.

사건 당일, 학생회장은 수업 시간 도중 화장실을 간 척하고 마스터 키로 인하군이 속해있는 동아리의 문을 따서 인하군 사물함 안에 있는 책에 독을 부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증거(마스터 키)

학생회장 : 학생회장으로 전 강의실 및 동아리방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남춘성 교수 : 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만약의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마스터 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동아리 부장 : 동아리의 부장으로 동아리실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전애인 : 추후 분실을 대비하여 인하군이 비상용 키를 복사해서 공유해 주었기 때문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